

# 매일 만나

2022. 10.

느헤미야, 데살로니가후서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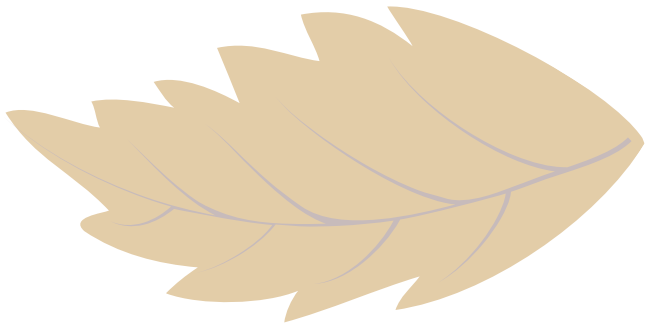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2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MEMO


## TO DO LIST



# 행복하게 하는 복음

〈계속 무너지는 유혹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이 말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뿐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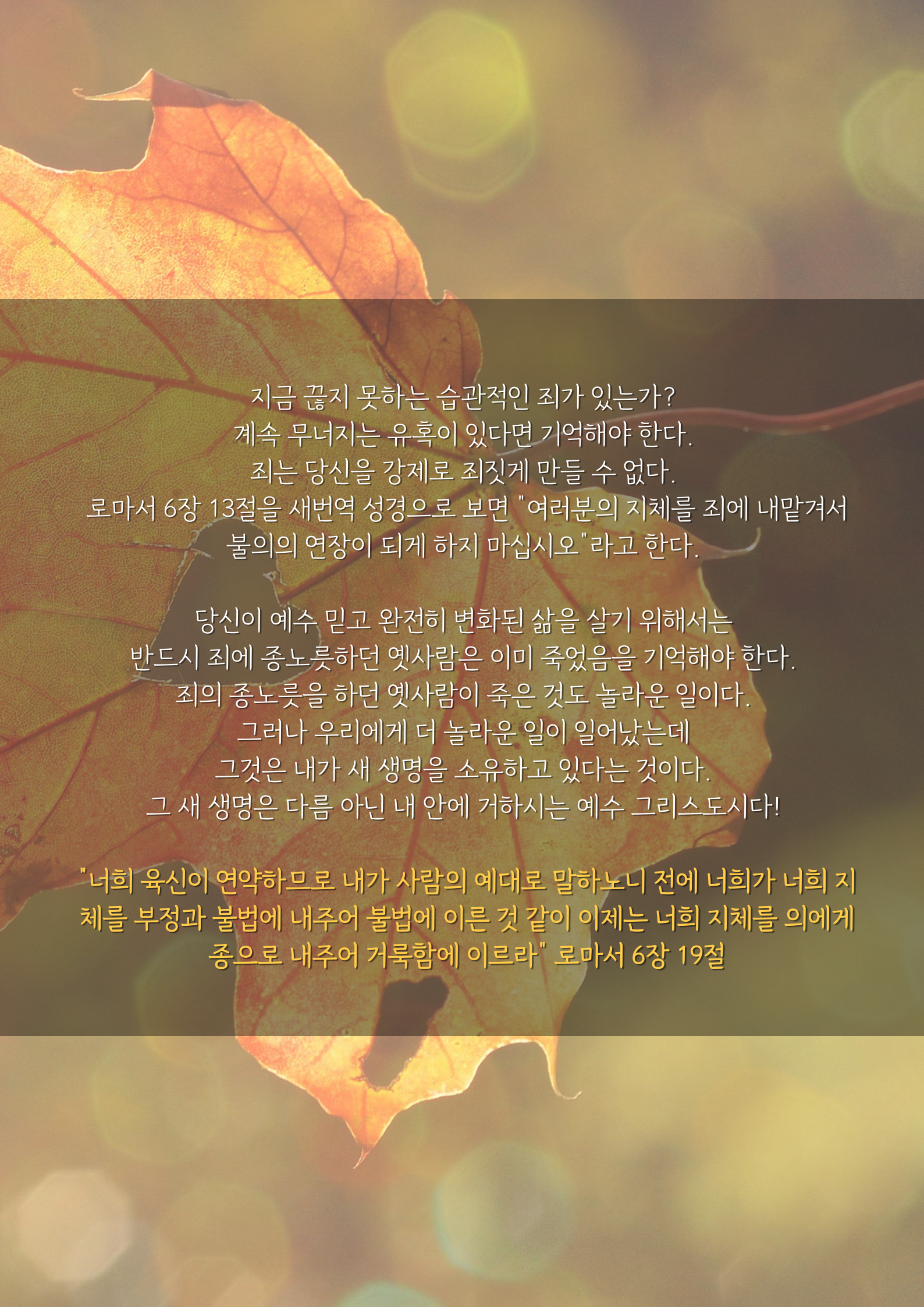
죄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음란한 유혹, 탐욕의 유혹, 이기적인 생각들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 죄야, 나는 너는 너의 종이 아니야!"

만약에 당신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집이에요. 오지 마세요"라고 할 것이다.

당신 안에 육신이 다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계속 무너지는 유혹이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  
죄는 당신을 강제로 죄짓게 만들 수 없다.  
로마서 6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새 생명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Holy Bible survey*

# 느헤미야

김요한 목사

## 1. 저자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라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주어의 대부분이 1인칭인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저자임을 가리킨다.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는 곳도 있으나 98:9; 10:1; 12:26, 47) 같은 시대의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자신을 열거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행적을 회고하는 것이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바사(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Artaxerxes) 1세의 수산 궁에서 술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다(B.C. 465-424). 그의 이름 끝자인 '야'는 그가족이 유다 전통 신앙에 충실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느 1:1). B.C. 444년에 친척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유대 인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전해 듣고 슬퍼하며 수심에 가득 차 있던 중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백성들과 동고동락한다. 담력과 지혜, 겸손과 신념, 불타는 애국심과 경건한 신앙심을 갖춘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역을 마친 뒤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저작연대

본서의 사건들은 대략 B.C. 445-425년경에 일어난 일들로서, 느헤미야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난 뒤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 연대는 대략 B.C. 420년경으로 추정된다.

### 3. 역사적 배경

느헤미야가 수산 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섬겼던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다. 부림절(에 9:20-32)은 아닥사스다 1세의 즉위 8년 전, B.C. 473년 3월 8일에 제정되었다. B.C. 458년 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유대 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듬해 봄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여러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그러나 르흠과 심세의 온갖 방해로 인하여 유대 인들은 참극(스 4:7-16, 21, 23 느 1:3)을 겪는다. 이러한 비보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그리하여 B.C. 445-420년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의 정통성 회복과 순수성 유지에 온 정성을 다 쏟는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로서 활동했다.(느 8:1-9;12:26)



### 4. 주요내용

에스라의 주제가 성전의 건축이라면 본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여호와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 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 민족의 상징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원수들의 갖가지 조롱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나팔소리는 결국 승리의 환호로 이어져 죄악으로 인해 허물어졌던 성벽이 갖은 고초 가운데서 재건되었다. 이는 포로 후의 새 출발에 있어서 새 삶의 터전이 되었고, 또한 신앙의 증거로서 후대에 큰 귀감이 되었다.

느헤미야는 이전 자기 민족의 멸망과 포로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율법의 회복과 거룩한 말씀에 대한 충실한 해석 및 준행에 그의 정성을 기울여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특히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겨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



# 01

토요일

##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 1:1-11

새찬송가 438장

-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 말씀 암송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29:14)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지속되며,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보호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하여, 8장~13장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 1~11절 주여 구하오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와 그의 동행들로부터 1차 2차 귀환했던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며, 예루살렘성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 울며 금식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였고, 둘째,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이 죄의 결과인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기도의 마침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음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섭리하심을 보여줍니다.



**Q**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02

주일

## 나를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 2:1-10

새찬송가 425장

-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 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 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 9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 암송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삿 6:17)



## 1~10절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후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며, 삶입니다.



**Q**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03

월요일

##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 2:11-20

새찬송가 342장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  
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  
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 앞으로 나아가 샴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  
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  
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  
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  
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  
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  
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  
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 11~20절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지 삼일째 되는 날 밤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사명과 귀환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두어 사람만을 데리고 은밀히 예루살렘을 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 것과 동북편 성벽은 짐승을 탄 채로는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진행한 것은 성벽 재건에 대하여 대적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중건 계획에 유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개하여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성벽 재건이 형통케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였습니다.



Q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4

화요일

##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아니하였으며

느 3:1-32

새찬송가 210장

1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눗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8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그 다음은 하루밍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14 분문은 뱀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5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 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눗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밍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뱀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 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말씀 암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라(딤후3:16)



본문이해

## 1~32절 예루살렘성을 중수하는 일꾼들

본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유다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각 집안별로 작업량과 장소를 할당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자세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각자가 맡은 분량에 따라 성벽 재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받은 사명에 따라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 모두의 수고와 땀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적용질문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사명은 무엇이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swers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5

수요일

##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 4:1-14

새찬송가 259장

-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흠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 5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 1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 12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 13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욘8:7)



## 1~6절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백성들과 협력하여 성을 건축하는데 산발랏이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멸시하며 일을 방해합니다. 비웃음을 당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며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들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같이 비웃으며 맞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비웃음과 방해는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자에 대한 사단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약점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조소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2~3).

## 7~14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대감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품고 있던 이방인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가 늘어나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아람들도 나타납니다. 이 때 느헤미야와 유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므로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태의 해결을 부탁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해 활용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선을 이루어주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 06

목요일

## 밤에는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느 4:15-23

새찬송가 28장

15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말씀 암송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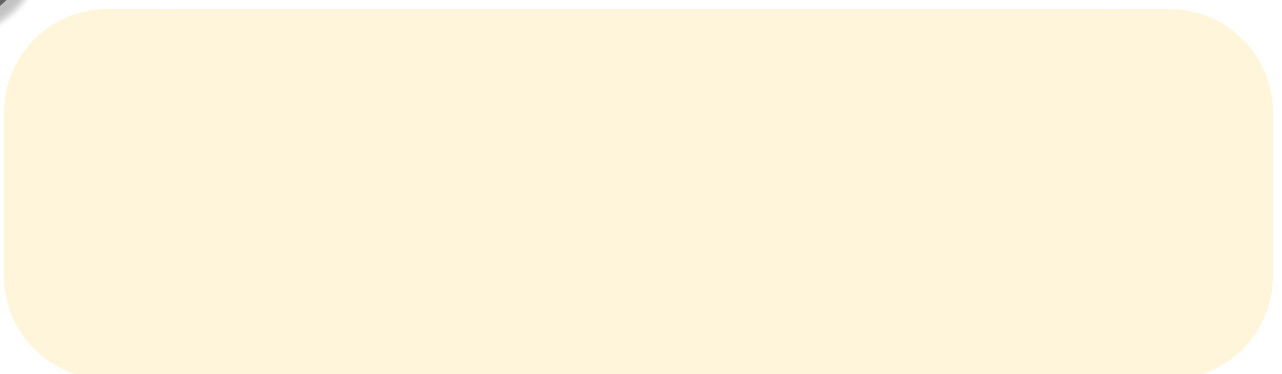


## 15~23절 임마누엘의 신앙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무장을 한 채 조직적으로 파수하는 등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기습 공격으로 단숨에 살육을 감행하거나(11), 무력의 과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재건의 의욕을 잃게 하려는 것이 수포가 됨을 깨닫고, 이들이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면서 병기를 잡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일하면서 휴대했던 병기는 그 목적이 성을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이를 막아 성을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려고 무기를 손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도 한편으론 열심히 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늘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수들은 항상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언제 어떠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를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원수의 침해에 대비하여 이스라엘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승리케 하심을 믿도록 믿음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 07

금요일

##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 5:1-13

새찬송가 455장

- 1 그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 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 3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 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 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 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 7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 8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 9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 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 11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 13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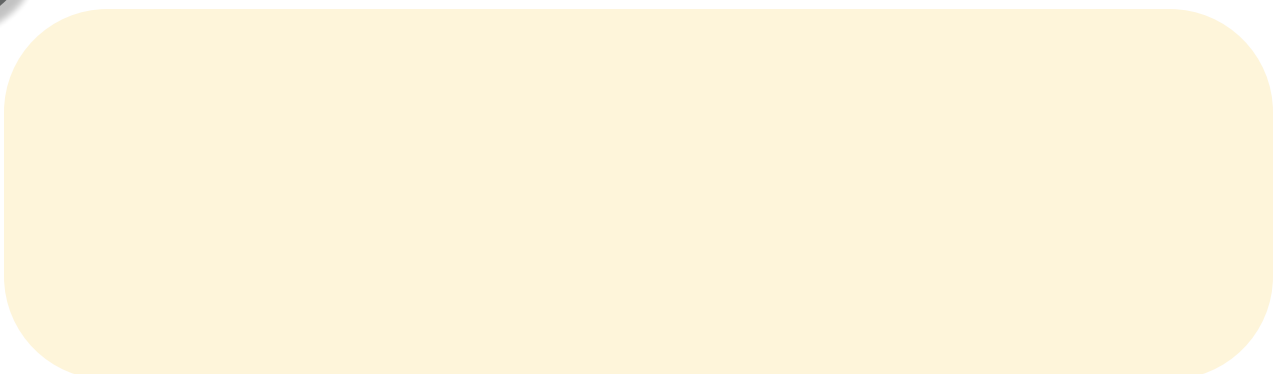


## 1~5절 바른 재물관을 소유합시다

외부적으로 산발랏 일당의 방해 공작이 점점 거세어지는 와중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단합하여 예루살렘 성 중건에 열성을 다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원망을 합니다. 그 원인은 물질 문제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곡식이 떨어져 비싸게 사 먹어야 했고, 돈이 없는 자들은 돈을 빌려서 곡식을 샀기에 빚만 늘어났기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되어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에게 자식을 빼앗겨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것과 심지어 그들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거나 빼앗기는 현상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출 22:25-27; 신 15:7~15)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어야 하며, 가난한 자의 물건을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아야 했을 터인데 느헤미야 시대의 부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이 곤경에 빠져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잠 28:27, 전 11:1~2).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바른 재물관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 08

토요일

##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아니하고

느 5:14-19

새찬송가 285장

-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 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오십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 암송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느5:19)



## 4~13절 곧 이렇게 달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유다 공동체는 흉년으로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얻어 페르시아 왕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해결했습니다. 생계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하여 양식과 돈이 필요한 유다 사람들을 위한 상류층의 방침은 공동체에 균열을 조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전락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자들의 딸들은 이미 종으로 팔렸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 상류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치룬 희생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빈곤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방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귀환 공동체를 돌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고, 그의 촉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 14~19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유다에 총독으로 임명받은 기간은 12년인데, 이 기간 동안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공동체에 짐을 주지 않기 위해 총독이 누릴 권리를 누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공동체의 안위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9

주일

##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 6:1-14

새찬송가 383장

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द्या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말씀 암송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द्या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느6:14)



## 1~9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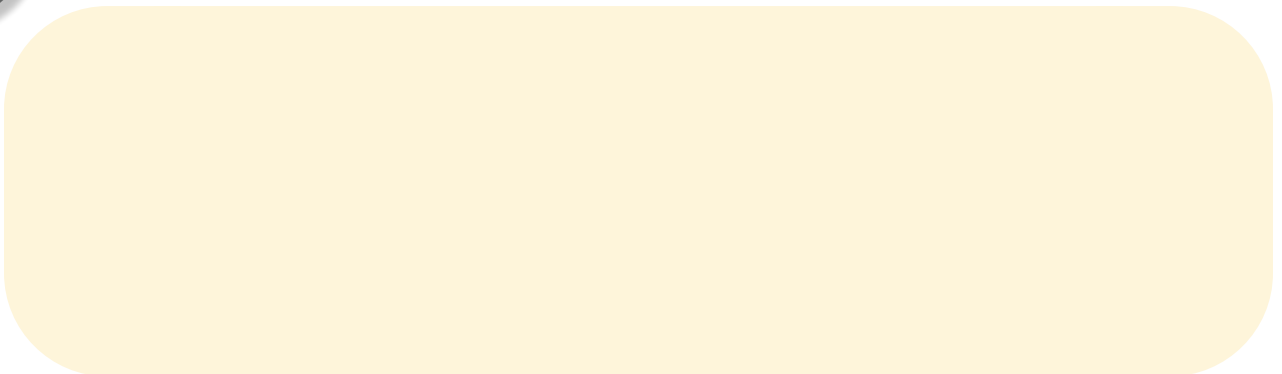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해할 목적으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에 대한 불순한 동기를 직감하고 원치 않는 만남을 지체롭게 피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전략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역모로 모함하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가 모반을 꾀하고 있으며 왕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다윗 가문과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이며 그 자체로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로 피곤하게 만들어 성벽 건축의 역사를 중단시키게 하려는 산발랏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만남에 대한 제의를 거둬 거절했습니다.

## 10~14절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단락에서는 도비야가 성벽 건축의 주된 방해자로 등장합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큰 제사장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스마야가 등장하고 그가 왜 그를 방문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야는 산발랏 일당이 보낸 자가 죽이러 올 터이니 느헤미야에게 성전 외소로 피해 문을 닫고 숨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도망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체면을 떨어뜨리고, 둘째는 제사장 신분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도비야와 스마야의 모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0

월요일

## 성벽 역사가 끝나매 다스리게 하였는데

느 6:15-7:4

새찬송가 390장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17. 또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솔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1.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6:16)



## 15~19절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이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성전 재건은 유대력으로 엘룰월 25일에 시작한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성벽 건축의 완공을 듣고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음을 16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비야는 유대의 많은 귀족들의 친척이고 친구였습니다. 도비야가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 18절의 므술람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역사의 견실한 지원자였습니다.

## 7:1~4절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본문은 성벽 건축이 끝났지만 성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남았음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의 성전 임무는 성전 문을 지키는 것과 제의적 성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명과 기구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시의 일반 행정을 담당할 능력이 있고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해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을 세우면서 다른 주요 사안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에 인구가 저근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Q**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11

화요일

##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느 7:5-60

새찬송가 408장

5.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농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먀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 ...
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느니라

말씀 암송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먀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느7:7)



## 5~60절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성벽을 세우고 난 뒤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될 안전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구 증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그곳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시로 이주할 사람들을 결정하려고 인구 조사를 위해 지도자들을 모으고, 1차 귀환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귀환자 명단은 에스라 2장에서 빌려온 것으로 단지 느헤미야 7:69-72와 에스라 2:68-70만이 다를 뿐입니다. 이 명단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성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이뤄 나갑니다.



**Q**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12

수요일

##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느 7:61-73

새찬송가 380장

- 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롭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 62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육백사십이 명이요
- 63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 64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 65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뭉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 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고
- 68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느니라
-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이백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 말씀 암송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15:16)



## 63~65절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임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사장 가문임을 주장할 수 없는 문서상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들처럼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 13

목요일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느 8:1-12

새찬송가 288장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 말씀 암송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 10절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머리에 고뇌가 가득 차면 육체도 병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면 온몸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로애락도 정욕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힘이 된 때를 생각해 봅시다.

# 14

금요일

##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느 8:13-18

새찬송가 265장

13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 암송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 16:14)



본문이해

## 본문설명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講讀)했지만, 백성들은 그것만으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좀 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막절의 참 의미와 구체적인 준수 방법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초막절은 예수 재림 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적용질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15

토요일

##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느 9:1-26

새찬송가 384장

1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울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14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말씀 암송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15)



## 본문설명

성벽공사를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며 열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순종하지 아니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 16

주일

##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느 9:27-38

새찬송가 420장

-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 28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 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 3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 31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 32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 33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 34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 35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 37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 38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본문이해

## 본문설명

본문은 포로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체가 되실 뿐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일에 불성실했던 자신과 달리 언약에 신실히 행하시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곤란해졌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적용질문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7

월요일

##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한 자는

느 10:1-27

새찬송가 336장

- 1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 3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 10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 11 미가, 르흠, 하사바,
-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 14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샷두, 바니,
- 15 분니, 아스갓, 베배,
-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 17 아델, 히스기야, 앓술,
- 18 호디야, 하숨, 베새,
- 19 하립, 아나돗, 노배,
-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 21 므세사벨, 사독, 앓두아,
- 22 블라댜, 하난, 아나야,
- 23 호세아, 하나냐, 핫슌,
-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 25 르흠, 하삽나, 마아세야,
- 26 아히야, 하난, 아난,
- 27 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

말씀 암송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



## 본문설명

본문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공휼을 구하는 기도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의 과정으로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의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절은 정치 지도자의 명단을 2-8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을, 9-1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14-27절은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갱신의 주역이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언약갱신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경적 개혁은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Q**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 18

화요일

## 하리라 하였고 드리기로 하였고

느 10:28-39

새찬송가 260장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 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탐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말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 본문설명

언약 갱신의 과정으로서 율법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찢던 명단을 보도한 후에 이어 인을 치지 않는 남은 자들의 율법준수 맹세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통혼 금지(30절), 안식일과 성일의 매매금지(31절), 안식년 준수 규례(31절), 성전제사제도 유지를 위한 규례(32절~34절) 첫소산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35-37절) 십일조 규례(37절~39절) 등을 맹세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은 성전제사제도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고전3:16) 성령의 거하는 것처럼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Q**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 19

수요일

##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느 11:1-24

새찬송가 384장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댜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5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6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대 손이며

8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이니 모두 구백이십팔 명이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이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 이요 므라웃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 손이며

12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팔백이십이 명 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 손이요 말기야의 육대 손이며

13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이백사십이 명이요 또 아맛새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호새의 손자요 므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14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백이십팔 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15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솅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 니의 현손 이며 16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갯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18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느니라

19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백칠십이 명이며

20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21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22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맛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살전1:4)



## 본문설명

본문은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10분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4절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성은 재건되었지만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가옥이 황폐화되었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0

목요일

## 마을과 들로 말하면

느 11:25-36

새찬송가 484장

- 25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뱌벨렛과
-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29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 30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 31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야와 아야와 뱌엘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 32 아나돗과 눅과 아나냐와
- 33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 34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 35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9)



## 25~30절 다른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여러 지방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랴트 아르바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브엘세바를 비롯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해 거주했다. 즉 유다 자손의 상속지인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으로 베냐민 지파의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예루살렘의 힌놈의 골짜기에 이르는 지역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수15:8).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표현은 아직 땅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광야 시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계승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이상적이고도 소망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 31~36절 다른 지역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들

베냐민의 남은 자손들도 게바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했으며,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과도 함께 거주했다. 주로 유다 지파 지역의 북부에 거주했지만 '오노'와 같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유다 지역 국경 너머에 있는 변방에 거주하기로 했다(6:2; 스2:33). 이것은 당시에 거주할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웠음을 보여 준다.



**Q**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 21

금요일

##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느 12:1-26

새찬송가 488장

- 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 2 아마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 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 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 5 미야민과 마아닥과 빌가와
- 6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 7 살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 8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냐니 이 맛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 9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 10 예수아는 요야김을 놓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놓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놓고
- 11 요야다는 요나단을 놓고 요나단은 앏두아를 낳았느니라
- 12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 13 에스라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 14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 15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웃 족속에는 헬개요
- 16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 17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닥 족속에는 빌대요
- 18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 19 요야립 족속에는 맛드내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요
- 20 살래 족속에는 갈래요 아묵 족속에는 에벨이요
- 21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 22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 23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 24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 25 맛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닥과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 26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말씀 암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 1~1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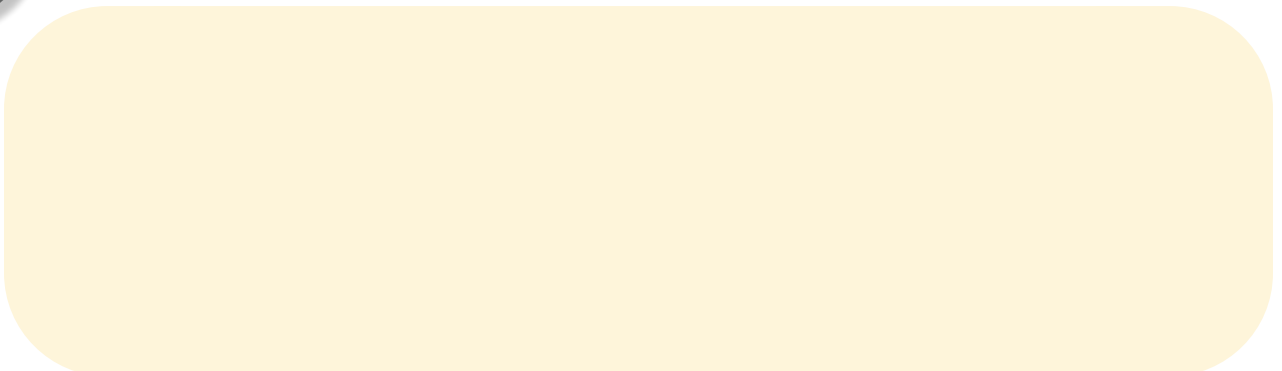
예수아와 함께 귀국해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 22명의 이름이 소개된다. 이어서 찬송하는 일과 그 외 다른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도 등장한다. 느헤미야 당시 뿐 아니라 더욱 어려웠던 시기에도 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백성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백성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 12~26절 제사장의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

아버지 예수아 다음으로 요야김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본문에는 요야김을 비롯한 다음세대의 대제사장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7절에 소개된 가문과 거의 동일한 목록이지만 핫두스 가문이 빠지고, 미야민 가문이 미냐민으로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상의 대제사장 목록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 신앙전통이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서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소개된다. 이들 명단은 다른 역사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사람, 날씨, 생각 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봅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22

토요일

##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 12:27-43

새찬송가 482장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 또 벤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33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35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 손 아삽의 육대 손 스가랴와  
36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9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40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41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43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시18:49)



## 27~30절 성벽봉헌식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졌고 백성은 이를 즐겁게 봉헌한다. 어느 시기에 봉헌 예배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음은 분명하다. 봉헌식에서 레위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했다. 성벽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렀다. 그리고서 백성은 물론 성문과 성벽까지 모두 정결하게 준비했다.

## 31~37절 오른쪽으로 찬송하며 행진하는 무리

성벽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백성은 성벽에 올라 봉헌식을 시작한다.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 한 편은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다른 한 편은 왼쪽으로 행진하게 했다. 각각의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 자손 중 일부는 나팔을 잡았고 다윗의 악기를 잡은 이들도 있었다. 다윗 시대에 드렸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었다. 온 무리는 성벽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38~43절 왼쪽으로 찬송하며 행진하는 무리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오른쪽으로 행진해 온 무리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것을 백성이 모두 크게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했다.



**Q**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 23

주일

## 그들이 성별한 것을 주고

느 12:44-47

새찬송가 490장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말씀 암송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25:13)



## 44~47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는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결 예식을 치렀으며 문지기로 일하거나 노래 부르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는 이들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와 십일조를 돌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기에도 이 율법이 지켜져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일이 됩시다.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4

월요일

##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 13:1-14

새찬송가 502장

- 1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 9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 11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 13 내가 제사장 셀레먀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 14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말씀 암송**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잠4:13)



## 느헤미야의 개혁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제외시킬 것에 대한 규정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내쫓음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개혁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후 다시 귀국하여 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십일조 제도를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로 간구합니다.



**Q**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25

화요일

##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느 13:15-22

새찬송가 407장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말씀 암송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전4:11)



## 안식일을 다시 지키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발견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만 드리워도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장사를 하기위해 성 밖에 유숙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끌었습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지 못한 습관이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26

수요일

##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 13:23-31

새찬송가 352장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말씀 암송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13:27)



본문이해

## 이방인들과의 결혼문제를 개혁함

또 느헤미야는 유다 귀환민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형벌을 주었으며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도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저지른 이방인과 결혼한 범죄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거룩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할 대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그를 추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도록 개혁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이킨 일이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swers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7

목요일

##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살후 1:1-12

새찬송가 325장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 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5:6)



본문이해

## 바울의 편지의 서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지만 종말론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질문



올바른 믿음 안에서 믿음생활하고 있습니까?

Blank area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8

금요일

##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후 2:1-12

새찬송가 179장

-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암송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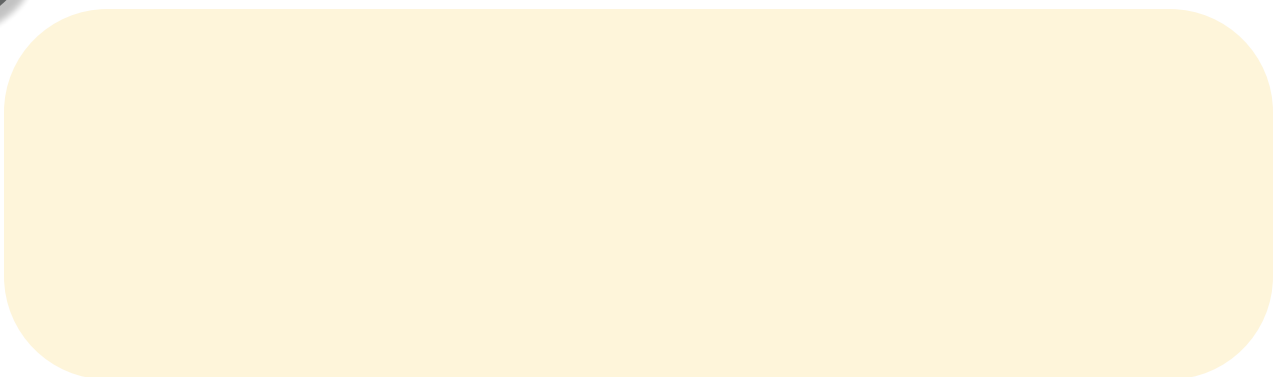
2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준 교훈입니다. 본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인 본문에서는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 당부와 재림 전에 있을 불법의 사람 출현 및 그들에 대한 심판 예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멸망으로 정해진 불의한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쳐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단의 세력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단과 적그리스도 혹은 우상 종교에 빠져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멸망으로 정해진 자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의 증거인 줄로 알고 끝까지 바른 복음 진리 위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 29

토요일

##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살후 2:13-17

새찬송가 546장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암송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전 15:2)



##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그릇된 재림 신앙으로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더불어 동시에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교활하게도 자신의 거짓 교훈이 마치 바울의 교훈인 것처럼 출처를 속였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지키지 않아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 교훈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건만, 그것조차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복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 진리를 배우고 굳게 잡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30

주일

##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살후 3:1-5

새찬송가 214장

- 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암송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5)



## 믿는 자의 특권

3장은 데살로니가후서의 후반부로서 종결부를 포함하여 재림 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전반부인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요청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 표명 및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신앙적 회의에 빠져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특권이므로 당면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환난당할 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찌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31

월요일

## 애써 주야로 일함은

살후 3:6-18

새찬송가 545장

-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2)



## 균형을 이루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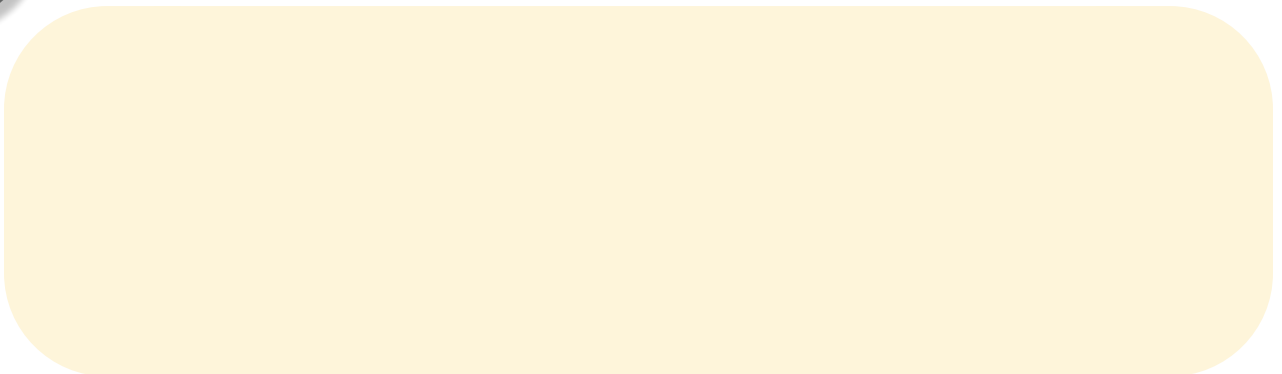
바울은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종말 사상으로 무위 도식하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아마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의지함으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지만 동시에 현실 생활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친히 모범을 보여 장막을 만들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8절에 그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한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현실 생활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와 능력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현실과 균형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2. 10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